이슈&진단

한국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 : 귀농·귀촌

제42호 2012. 4. 4

• 작성 : 이수행 / 창조경제연구부 연구위원
(soohaeng@gri.kr, 031-250-3278)
이상훈 / 창조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목 차

쟁점과 대안
Ⅰ. 귀농·귀촌의 현황
Ⅱ. 귀농·귀촌의 새로운 트렌드
Ⅲ. 정책방향
Ⅳ. 시사점

- 「이슈＆진단」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진단」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경기개발연구원 Gyeonggi Research Institute

- 발행|2012년 4월
- 발행자|홍순영
-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전화|031-250-3114
- http://www.gri.kr

베이비부머의 농촌지역 이주는 농촌지역 인구변화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농촌경제 및 개발정책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것은 은퇴를 바로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안전망과 연금제도, 노동력 관리, 보건정책 등 사회경제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의 농촌이주는 소득과 고용 면에서 이주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주거, 교통, 인프라 및 사회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농촌지역 이주는 지역경제에 자본유입과 개발기회 확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인정책을 확대시키거나 다양한 전략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Cromartie and Nelson, 2009-
"Baby Boom Migration and Its Impact on Rural America", *Economic Research Report 79*, ERS, USDA.

쟁점과 대안

한국에서의 귀농·귀촌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직으로 인한 생계형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금융위기와 베이비부머 은퇴, 전원생활 선호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98년에는 6,409가구가 귀농·귀촌하여 전년대비 2.5배 증가하였고, '11년에는 10,503가구로 전년대비 1.6배 증가하였다. '97~'99년 기간 동안에는 30대가 48.6%로 귀농·귀촌을 주도한 반면, '09~'11년 기간 동안에는 50대(30.8%)와 40대(27.9%)가 주도하였다. '11년 기준 지역별 귀농·귀촌 비중은 강원 20.6%, 전남 17.2% 등의 순이며 경기도는 2.1%이다.

최근의 귀농·귀촌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형」은 자본과 모바일·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융·복합 농산업을 발전시켜 억대 부농을 확대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 「전원생활형」은 은퇴 이전에 이직하여 소규모 영농과 유통, 관광, 창작활동 등에 종사하며 전원적 생활을 중시한다. 「노후생활형」은 은퇴자가 농촌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규모의 영농활동을 기반으로 자족적 노후생활을 영위한다.

실업자나 은퇴자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도시의 잉여 노동력과 복지수요를 농촌공동체와 생산시스템에서 흡수함으로써 도·농을 연계한 생산적·능동적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귀농·귀촌 이후 적응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영농을 시작하는 스타트업(Start-up) 단계의 귀농인 대상 전문경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은퇴자 및 빈곤노인에게 적합한 작물 재배 및 빈집, 은퇴농장 등의 지원을 포함하는 맞춤형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3) 귀농·귀촌인이 원주민과 긴밀하게 연계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공동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퇴직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농림진흥재단과 농업기술원이 주도하는 기본교육과 스마트형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1년 과정의 인턴농과 2년 과정의 인큐베이팅 등 1+2적응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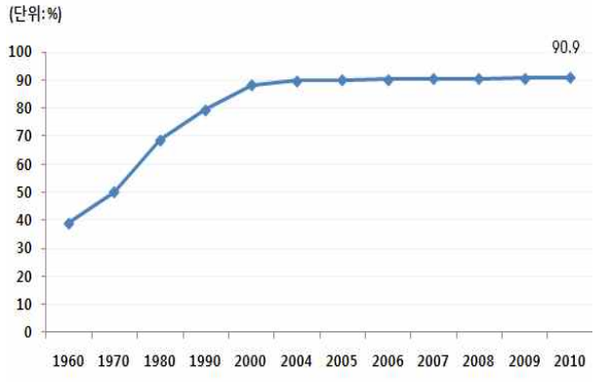
Ⅰ. 귀농 · 귀촌의 현황

이촌향도(離村向都)에서 이도향촌(離都向村) 시대로 전환

☐ 한국의 도시화율은 2000년 이후 90%대를 유지하며 정점에 달한 가운데 2007년을 기점으로 농촌유입인구가 유출인구를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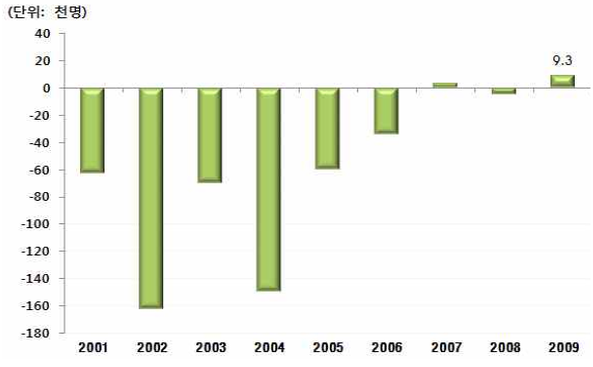
○ 2007년 농촌순유입인구가 3천4백 명을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9천3백 명으로 증가

<한국의 도시화율>



자료 : "전국민의 91% 도시지역에 산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7.26)

<농촌 순유입인구 변화 추이>



자료 : 김정섭 외(2011). "귀농 · 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방안", 『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향하던 시대에서 도시의 과잉 인구가 농촌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시대로 전환을 의미

○ 실업과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증가 등 현대 도시의 과잉인구 형성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의 유출을 촉진하는 압출 요인(Push Factor)으로 작용

- 전원생활 선호, 친환경 농산물 등 농산물 소비의 다양화, 디지털화를 통한 유통의 발전 등은 농촌과 농업의 흡인력(Pull Factor)으로 작용

경제위기와 베이비부머 은퇴를 계기로 귀농·귀촌 급증

☐ 1997년과 2008년의 경제위기, 베이비부머의 은퇴, 전원생활 양식 선호 등 도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 증가

○ 귀농·귀촌 가구는 1998년 6,409가구로 전년도에 비해 2.5배 급증하였고, 그 후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2011년 다시 10,503가구 전년대비 1.6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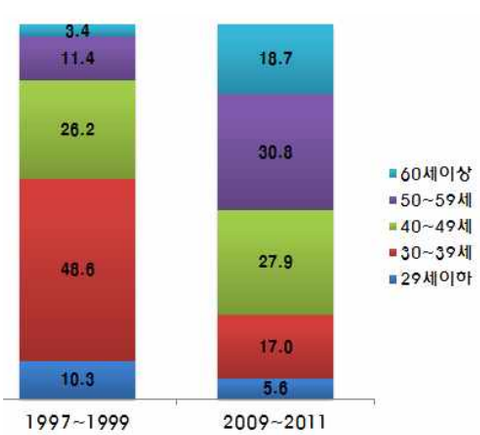
- 1997년 외환위기시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귀농·귀촌이 최근 베이비부머 은퇴시기 도래와 맞물려 또다시 급증

- 귀농·귀촌 인구의 연령별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30대가 48.6%를 차지한 반면, 최근에는 50대가 3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30대의 귀농·귀촌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년실업, 농업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 등으로 2009~2011년 기간에도 17.0% 차지

- 스마트농업, 융·복합농업 확대 등으로 농업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젊은 영농인이 지속적으로 유입

<연령별 비중>



<연도별 귀농가구 수 추이변화>

자료 : "지난 해 귀농·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2.23).

☐ 2009년 전후 우리나라의 압축적 도시화·산업화의 주역이었던 1955년생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

○ 은퇴기에 도달한 베이비부머들은 도시를 떠나 전원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경향이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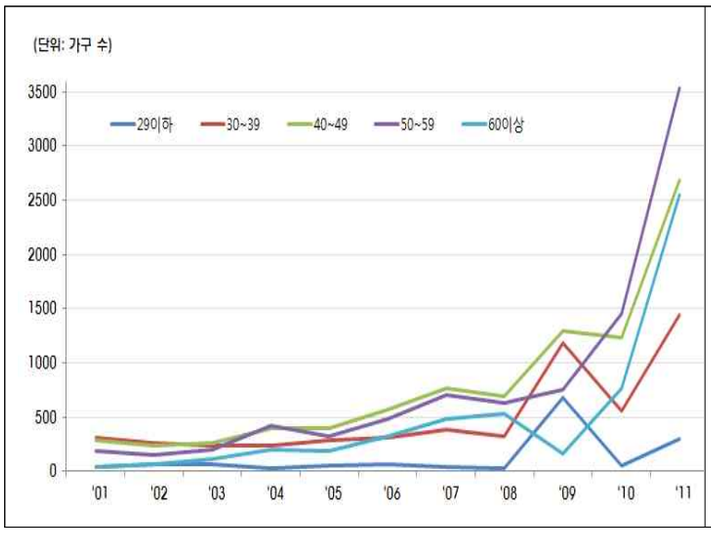
- 교통인프라의 개선,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의 은퇴자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소요된다는 점 등도 귀농·귀촌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1)]

○ 20~30대의 귀농·귀촌이 2009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2010년 다시 급증

- 2009년 20~30대의 귀농·귀촌이 급증한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도시지역 일자리 감소가 주요 원인

- 최근에는 억대부농 탄생, 스마트농업 등 농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대두되면서 젊은 층의 귀농·귀촌 증가

<연령별 귀농·귀촌 가구 변화 추이>



<베이비부머 인구규모>

구 분	인구수(명)
1955년생	663,319
1956년생	708,728
1957년생	742,633
1958년생	784,111
1959년생	823,550
1960년생	848,690
1961년생	858,141
1962년생	854,550
1963년생	841,625
합계	7,125,347

자료 : "지난 해 귀농·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2.23).

1) 노후 필요 생활비가 광역시의 경우 2억5천만 원 인 것에 비해 군지역은 1억4천만 원으로 광역시의 58%에 불과(이철용(2006), 노후자금 4억~5억원이면 충분하다, LG주간경제 871호, LG경제연구원).

선진국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의 귀농·귀촌 증가 추세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베이비부머의 은퇴시기에 귀농 귀촌이 증가

○ 일본은 680만 명으로 추정되는 베이비부머(1947~49년생) 은퇴시기가 도래하면서 2000년 이후 연간 6만 명 정도가 귀농[2)]

- 미국은 1990~2010년 기간 동안 비도시지역 인구가 323.4만 명 증가했으며, 2020년 비도시지역 인구는 2010년 대비 26.5% 증가 전망

- 영국은 지난 10여 년간 80만 명의 농촌인구가 증가

☐ 우리나라 도시민의 63.7%가 귀농·귀촌 의향을 가지고 있어, 베이비부머 귀농·귀촌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귀농·귀촌 의향은 2010년까지 낮아지는 추세를 나타내다 2011년에 큰 폭으로 증가

-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 귀농·귀촌의 요인과 형태가 다양화 될 전망

<미국 비도시지역(nonmetro) 55~74세의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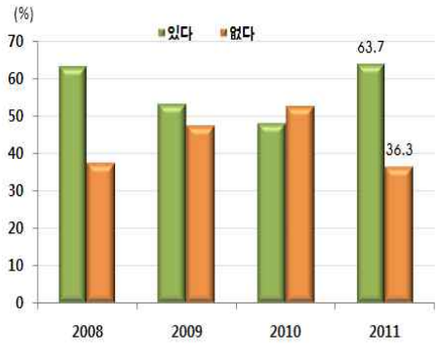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명)

구 분	1990	2000	2010	2020 (추정)
북동부(Northeast)	0.886	0.925	1.276	1.686
중서부(Midwest)	2.633	2.685	3.235	3.944
남부(South)	3.480	3.868	4.972	6.272
서부(West)	0.957	1.152	1.708	2.251
합계	7.957	8.631	11.191	14.152

자료 : John Cromartie and Peter Nelsom(2009). *Baby Boom Migration and Its Impact on Rural America*. USDA

<한국 향후 농촌 거주 의향>

(단위 : %)



자료 : 김정섭 외(2011). "귀농·귀촌 동향과 지역의 대응 방안", 『농업전망 20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최윤지 외(2012). "귀농 손자병법 : 대지에 뿌리내리는 삶", 『RDA Interrobang』, 제53호,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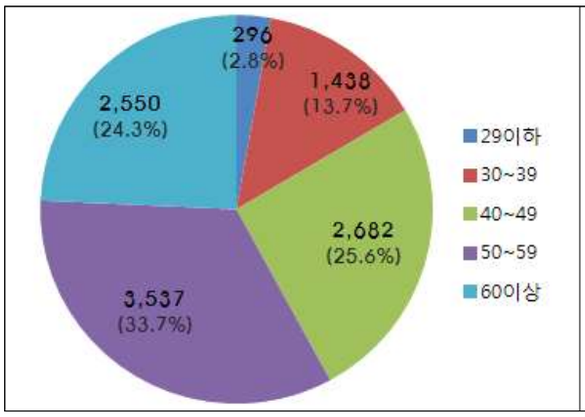
최근 5년간 귀농·귀촌의 높은 증가세는 40대 이상이 주도

☐ 귀농·귀촌의 연평균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가구 수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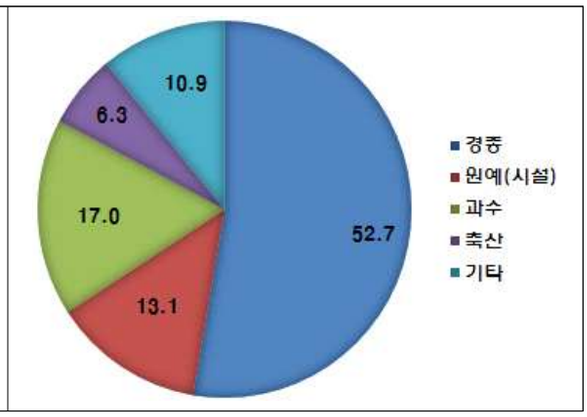
○ 2006~2011년 기간 동안 귀농·귀촌 가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60대 이상이 51.2%, 50대 49.0%, 40대 36.5%, 30대 35.5% 등의 순임

- 2011년 기준, 연령별 귀농·귀촌 가구 수는 50대 3,537가구(33.7%), 40대 2,682가구(25.5%.), 60세 이상은 2,550가구(24.3%) 등의 순임

<연령별 귀농·귀촌 분포(2011)>



<귀농인의 주요 선택 작목(2011)>



자료 : "지난 해 귀농·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2.23.).

☐ 귀농인은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경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채소, 오이 등 경종업을 선택하는 경향

○ 귀농인이 선택하는 주요 작목은 경종업 52.7%, 과수 17.0%, 축산 13.1% 등 순임

- 채소, 오이, 토마토 등 경종업은 과수, 축산 등에 비해 경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자금회전이 빨라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에 유리

귀농 · 귀촌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강원, 전남 등에 집중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귀농 · 귀촌의 지역별 비중은 강원도가 20.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남 17.2%, 경남 16.8%, 경북 16.7% 등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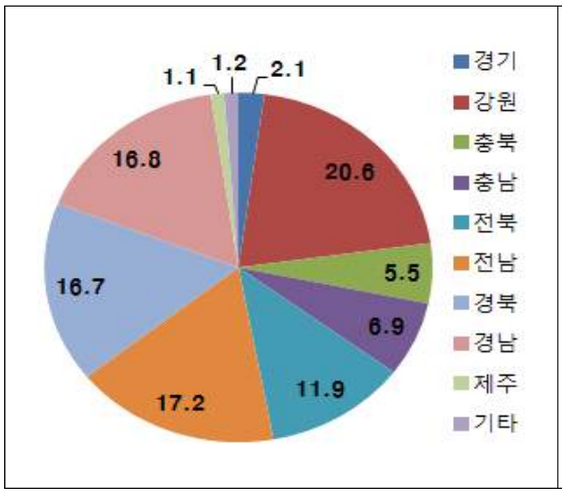
○ 강원도 등 비수도권으로의 귀농 · 귀촌 비중이 높은 것은 낮은 토지가격, 적극적인 유치정책 추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비수도권 지자체가 귀농 · 귀촌 유치를 위해 조례제정 등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하는 것에 비해 수도권은 옹진군, 양평군 등 지역만 조례제정
- 경기도는 높은 토지가격과 도시화로 우리나라 귀농 · 귀촌 가구의 2.1%로 낮은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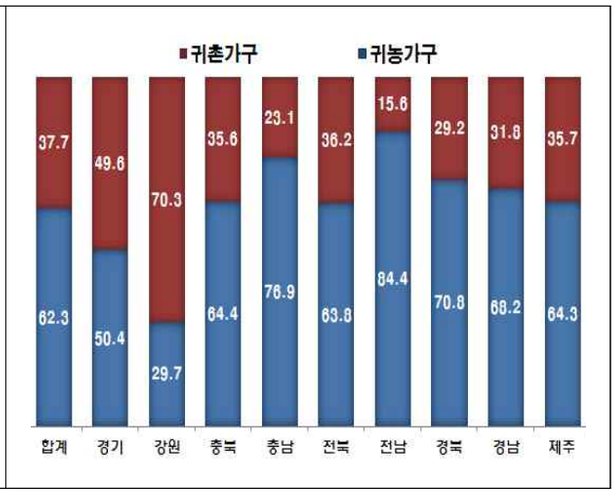
○ 강원도와 경기도는 귀촌의 비중이 높고, 전남, 충남, 경북 등은 귀농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

- 강원도의 귀촌 비중은 70.3%, 경기도는 49.6%, 전남은 귀농의 비중이 84.4%, 충남 76.9%, 경북 70.8% 등임

<귀농 · 귀촌의 지역별 분포(2011)>



<지역별 귀촌과 귀농의 비중(2011)>



자료 : "지난 해 귀농 · 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 2..23).

Ⅱ. 귀농·귀촌의 새로운 트렌드

귀농·귀촌이 생계형에서 스마트형, 전원생활형, 노후생활형으로 분화

▢ IMF 당시의 귀농·귀촌이 실직에 의한 생계형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형」, 「전원생활형」, 「노후생활형」으로 분화

○ 스마트형은 기업적 가치를 추구하며 농업에 디지털·모바일 환경을 결합하여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집단

- 자본 및 기술을 가지고 귀농·귀촌하거나 농업대학 졸업 후 창업하는 청장년으로 생산-유통-판매에서 새로운 양식을 도입 하여 혁신을 주도

○ 전원생활형은 텃밭 가꾸기, 창작·취미활동, 커뮤니티 활동 등 도시의 제약된 환경에서는 하기 어려운 활동을 통해 전원적 삶을 추구

- 일부는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농촌 커뮤니티의 변화를 주도

<귀농·귀촌의 유형 구분>

유 형		시기 (직업변화형태)	목적	생활영역 및 형태
스마트형		청장년 (창업/전업)	- 기업적 가치 추구	- 농산물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종사 - 융·복합 영농
전원 생활형	귀촌	청장년 (이직/전직)	- 삶의 대안적 가치 추구	- 전원적 생활양식 추구 - 텃밭 가꾸기, 창작·취미생활 등 추구
	귀농			- 전원적 생활양식 축구 -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 다양한 소득창출 활동
노후생활형		노년 (은퇴)	- 노후생활 터전	- 노인이 경작 가능한 실버농업에 종사 - 중산층과 빈곤층 혼재

○ 노후생활형은 은퇴 이후 귀농하여 양봉, 버섯, 텃밭 등 노인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영농으로 자족적 생활을 하는 노인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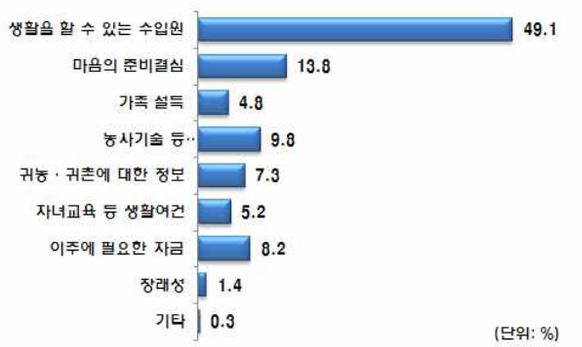
- 은퇴 이후 노인이 도시에서의 수동적·소비적인 삶보다 농촌에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통해 보람 있는 노년 생활이 가능

- 노후생활형 귀농·귀촌은 도시지역의 복지지출 부담을 완화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

「농업·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이 농촌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61.5%),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17.4%)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기되었으며, 귀농·귀촌 이후 생활에 필요한 최고한의 수입원(49.1%)을 갖기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농촌 거주의향 이유>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



자료 : 김동원 외(2011). 『농업·농촌에 대한 2011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마트형은 IT와 농업을 결합한 융·복합 농산업을 추구

☐ 농업이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모바일 기술과 결합되면서 생산, 판매, 소비 등 영역에서 스마트농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

○ 센서와 네트워크 기술에 기초한 농사기술이 개발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공간을 뛰어 넘는 정밀하고 표준화 된 관리가 가능

- 영농과정에 필요한 정보의 실시간 획득이 가능해지면서 각종 기술과 다양한 정보가 결합된 맞춤형 스마트농업이 태동

- SNS, 스마트TV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에 가지 않고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여 직거래, 공동구매 등이 활성화

<스마트농업의 진화>

- (생산)스마트폰을 활용한 온·습도 및 냉난방, 병해충 관리, 작물의 생육관리, 원격 농업컨설팅, 기상정보, 가격정보 등을 통해 생산 효율화
- (유통)농산물 도매시장의 스마트폰 경매,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소비자와 생산과정을 실시간 공유함으로서 거래 활성화 및 유통비용의 획기적 개선
- (소비)농산물 생산, 유통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자료 : 김상철 외(2011). "스마트 시대, 스마트 농업", 『RDA Interrobang』 제13호, 농촌진흥청.

○ KT, 농촌진흥청, 일부 지자체 등은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 KT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재배시설을 작동시켜 물주기, 온도조절, 습도조절 등 토털감시 및 제어기능이 가능한 올레스마트팜 개발

- 농촌진흥청은 기상정보, 병해충발생정보, 농업기술정보 등을 농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여하여 운영

<KT 시설재배용 올레스마트팜>

자료 : "KT, 시설재배 관제용 앱 '올레 스마트팜' 개발", KT 보도자료(2011.3.10.).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업기술정보>

자료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귀농 2세대[3]는 1세대의 생산기술에 IT를 접목하여 억대 부농 실현

○ 디지털·모바일 기술과 농업의 결합을 통해 효율적인 농장관리, 인터넷 판매 등으로 억대 부농을 실현한 사례 증가

- 귀농 3년차인 경기도 여주의 J씨는 생산성이 높은 기무재배 (氣霧栽培)라는 새로운 시설농법을 도입해 무농약, 무오염의 채소 생산
- 전남 영암의 A씨는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개척
- 전남 무안의 B씨는 태블릿PC를 활용하여 암소의 수정시기, 품종관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우수품질의 송아지 생산

<기무재배 농법을 활용한 시설채소 재배>

경기도 여주에 귀농한 J씨는 대기업 해외지사에 근무하면서 얻은 기무재배 농업기술을 은퇴 이후 귀농에 활용하여 품질 및 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무농약, 무오염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J씨가 도입한 기무재배 기술은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수경재배와 달리 양액을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법으로 물 사용량이 기존 농법의 10%에 불과하다.

J씨는 또한 회사근무시 습득한 철골기술을 활용해 하우스를 돔 형식으로 설치하였다. 돔 형식의 하우스는 공기순환이 잘 되며, 실내 재배공간 디자인을 다채롭게 하여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료 : 현장 인터뷰 및 촬영(2012. 3. 27).

3)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귀농·귀촌한 세대를 귀농 1세대로 지칭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귀농·귀촌한 세대를 귀농 2세대로 지칭.

전원생활형은 귀농 · 귀촌을 통해 전원적 삶의 대안적 가치 추구

☐ 전원생활형 귀농은 농업, 가공, 유통, 관광 등에 종사하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 농촌에서 적정규모의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산물 가공 · 판매 · 체험활동 등 다양한 농외소득 창출

- 자본, 기술, 도시에서의 경험, 아이디어 등이 융 · 복합된 혁신적 농산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등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선도

<전원생활형 귀농 사례 - 경남 산청 H씨>

웨딩 포터그래퍼로 활약하던 H씨는 은퇴를 앞두고 남은 인생을 위해 아내와 상의해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약초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던 산청군으로 내려와 1년 간 당귀 농사를 지었으나 실패를 겪었다.

실패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귀농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농이 아닌 관광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매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숲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단체인 '초록교실 씨밀레'와 인연이 되어 사단법인 '숲과 문화의 향기'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방과 후 건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H씨는 또한 '구름 속 산책' 농장에서 완전 유기농으로 방사 유정란을 생산하여 공급이 가능한 도시민 150명의 소수 회원들을 철저히 관리 하고 있다.

자료 : 귀농 · 귀촌센터 홈페이지(http://www.returnfarm.com).

○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창업 추진, 제철꾸러미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시도

- 귀농 · 귀촌인이 도시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새로운 농산업 아이템을 발굴해 활발하게 창업활동을 전개

- 「제철꾸러미」 사업은 농산물 소비자이던 도시민이 귀농 이후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품목 · 소포장 친환경농산물 직거래형태로 발전시킨 사례

<귀농인의 창업아이디어 발굴 사례>

사례 1 :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창업활동 추진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2009년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 된 사업은 "진안홍삼 현미경 발효제품 생산", "지역자생약초를 활용한 효소음료 상품 개발", "농특산물 전시장 및 직거래 유통", "자생약초를 활용한 화장수 및 추출물 개발", "천마차, 천마효소 만들기", "약초생산기반을 활용한 도농교류사업"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 함께 아이템을 발굴하여 제안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사례 2 : 도시민의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운 상품화기법 개발

귀농인이 귀농하여 농사를 지은 이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도시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하는 방식으로 제철꾸러미사업이 등장하였다. 꾸러미사업은 다양한 품종의 작물을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소비자에게 다품목・소포장 형태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생산자조합이 결성되어 다수의 생산자가 텃밭형태로 토종의 씨앗을 사용하여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이를 소포장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생산자조합과 소비자간 직거래모델로 정착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제철꾸러미사업 소포장>

자료 : 1. 황정미 외(2011). "귀농・귀촌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국립농업과학원.
2. 최윤지 외(2012). "귀농 손자병법 : 대지에 뿌리내리는 삶", 『RDA Interrobang』, 제53호, 농촌진흥청.

○ 농촌마을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일부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 귀농・귀촌 이후 농촌에서 대안학교 운영, 마을리더 역할을 통한 창조적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간 시너지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발전 촉진 요소로 작용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사례>

활 동	사례 개요 및 효과	인적 사항	지원 유무	유사 사례
농산물 생산(가공) 조직운영	- 학교급식 공급을 위한 농산물 전처리 가공 영농조합법인 설립・운영 ⇒ 지역내 고용, 농산물 판매 효과 창출	52세 양구 6년차	유	완주 괴산 홍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09년 지역사회문화학교 "지리산 학교" 개교 - 귀농・귀촌 예술인 12명이 사진, 퀼트, 시, 천연염색 등 12과목 교양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토착주민의 관심 및 참여 증가	41세 하동 4년차	무	봉화 산청 완주

자료 : 황정임 외(2011). "귀농・귀촌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 국립농업과학원.

☐ 전원생활형 귀촌은 경기도, 강원도 등 교통접근성 및 농촌 어메니티가 양호한 지역 선호

○ 예술인, 프리랜서 등 출·퇴근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생활을 중시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기존의 농촌마을과 형태적·공간적으로 구분되는 단지 혹은 개별형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

- 경기도 양평, 가평 등에 많으며, 양평의 경우 700여 명의 미술작가가 전원에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

○ 농촌 지역사회와의 융합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오가면서 생활하거나 혹은 취미와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이 어울려 생활

<귀촌사례 - C씨의 꿀초>

번역일을 하는 C씨 부부는 2002년 귀촌했다. 부부는 하루 2차례 산책을 거르지 않고 있으며 번역 일과 밀랍초 제작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그저 물 흐르듯 때가 되면 초를 만들고 의뢰가 들어오면 함께 번역 작업을 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 돌보는 일을 한다. C씨가 귀촌 이후 현지의 꿀을 활용해 제작하는 밀랍초는 한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연재료만 사용할 뿐 인공색상을 전혀 첨가하지 않는다. 돈 쓸 일이 별로 없으니 수입이 적어도 상관없다. 일단 주문이 들어오면 입금 여부 확인은 나중 일이고 정성껏 포장해서 보내는 게 우선이라고 부부는 말한다.

자료 : 빈도림 슬로카페 & 게스트하우스(http://cafe.naver.com/bindorim).

노후생활형은 도시은퇴자가 전원에서 노년의 삶을 영위

☐ 도시주민이 은퇴 후 노년의 생활터전으로 농촌을 선택하고, 소규모 영농을 통해 자족적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증가

○ 2011년 60세 이상의 귀농·귀촌 가구는 2,550가구로 전년도의 769가구 대비

3.3배 증가

- 2011년 60세 이상 귀농·귀촌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3%에 달함
- 노후생활형 귀농은 노후자금이 비교적 여유 있는 중산층 은퇴자와 복지수혜의 주요 대상인 빈곤층으로 구분 가능

○ 노후생활형 농업은 실버세대가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농업을 통하여 노년의 자족적 생활을 유지하는 형태

<노후생활형 농업>

노후생활형 농업은 고령자를 쾌적한 농촌으로 이동시켜 적당한 일거리와 소득생활로 실버세대가 스스로 경제적 여건을 굳건히 하면서 남은 삶을 보람 있고 건강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농업 노동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실버세대 스스로에게 수익을 주어 노년의 안정을 추구하는 농업으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위험성이 있는 고소득을 추구하기보다는 수입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분야
- 작업량, 작업 강도 등이 노년층에 적합한 수준이어야 하며, 적당한 운동량이 요구되는 농사일
- 노년층 스스로가 좋아하는 농작물 선택과 동시에 농사를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 제공
- 적당한 작물은 소규모의 친환경농업 및 버섯재배, 양봉, 약초재배, 곤충사육 등

자료 : OK시골(2004). "실버농업의 필요성"(http://www.oksigol.com).

<일본 실버세대의 농촌 일자리 창출 사례>

일본 오가와무라(小川村)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음식을 제조·판매하는 와가와무라노효(小川の庄)를 설립해 노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와가와무라노효의 고용구조는 40대 이하 21%, 50대 30%, 60대 33%, 70대 16%로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 한다. 오야키의 제조특성은 고강도의 노동력보다는 숙련된 경험을 살린 수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착안하여 실버세대의 숙련된 경험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고령자가 제조·판매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전통수작업 제조방식>

<오야키 정식>

<오야키 체험홍보물>

자료 : (사)지역농업네트워크(2010). 『해외출장보고자료』.

Ⅲ. 정책방향

귀농·귀촌으로 도·농 연계 생산적·능동적 복지시스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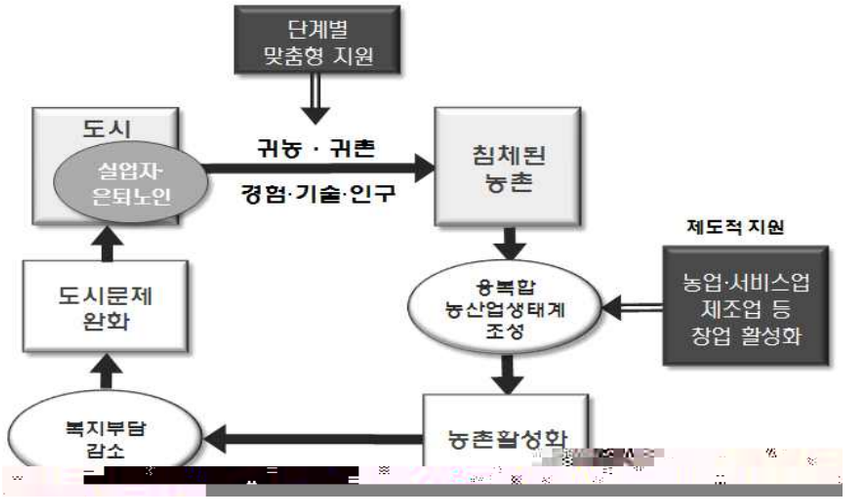
☐ 실업자나 은퇴자의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도시의 잉여 노동력과 복지수요를 농촌의 공동체와 생산시스템에서 흡수

○ 자본과 기술 및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은퇴자들이 농촌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여 도시의 복지부담 완화 및 농촌지역 활성화 기대

- 은퇴 이후의 도시 생활은 소비적·수동적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며 복지비용 등 사회적 부담이 증가

- 노년에 적합한 농업 생산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능동적·생산적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복지부담을 완화하고 농촌지역 발전에도 기여

<귀농·귀촌을 통한 도농연계 생산적·능동적 복지시스템>



☐ 귀농·귀촌인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업을 촉진하여 농촌형 융·복합 산업생태계 조성

☐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스마트형 귀농인을 위한 통합적 귀농 지원시스템 구축

○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단순한 농사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에서 기후, 시장가격, 국내외 동향 등 구체적 정보와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양방향 농업컨설팅 지원

은퇴자 및 빈곤노인을 위한 맞춤형 귀농 · 귀촌 프로그램 구축

☐ 은퇴자에게 건강한 삶의 보장 및 소득창출도 가능한 노후생활형농업 추진

○ 노후생활형농업은 노인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통한 소득창출 및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복합적으로 추진

-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업종 선정 및 맞춤형 교육을 추진

- 마을주민, 은퇴자들의 경험 및 지역 농산물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통음식, 체험관광 등을 주요 상품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창업 촉진

<일본 시즈오카현의 노후생활형농업 교육 및 체험>

사진 (좌, 중) : 靜岡縣 홈페이지(www.pref.shizuoka.jp), (우) : 群馬縣홈페이지(www.pref.gunma.jp).

○ 빈집, 은퇴농장 등을 활용해 은퇴자들을 유치하고, 마을단위 혹은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은퇴자들의 자족적 생활기반 구축 지원

- 국유지, 농촌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활용해 은퇴자에게 임대 분양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는 자족적 생활기반 구축

귀농·귀촌인-원주민 통합형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촉진

☐ 전문인에서 예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흡수되어 농촌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는 선도적 역할 강화

○ 귀농·귀촌인이 원주민과 통합형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창조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신청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 귀농·귀촌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원주민 인터넷교육, 홈피제작 지원, 원주민 자녀의 외국어, 재능 및 특기 교육, 보건·의료 봉사활동 지원

<귀농·귀촌인이 마을리더를 담당한 지역 현황>

사업명	합계	마을종합개발			체험마을			
		소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산촌생태 마을조성	소계	녹색농촌 체험마을	아름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전체(A)	1,063	343	281	62	720	535	18	167
귀농·귀촌 마을리더(B)	494	247	204	43	247	191	5	51
B/A(%)	46.5	72.0	72.6	69.4	34.3	35.7	27.8	30.5

자료 : "앞서가는 농촌 마을에는 귀농·귀촌 리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 2. 20).

Ⅳ. 시사점

☐ 경기도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단계별 귀농·귀촌 교육시스템 구축

○ 경기도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퇴직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

- 농업을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과 취미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 추진

- 귀농·귀촌 교육을 입문단계, 적응단계, 정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귀농·귀촌 3단계 지원 방안>

구 분	귀농	귀촌
입문단계	• 농업관련 기본 교육 • 품목별 기본 교육 • 스마트농업 기본 교육	• 농촌 지역별 현황 및 특성 소개 • 귀촌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현장 중심 소개
적응단계	• 인턴농제도 개선 - 1~2개월 단위 농장 전환 허용 • 귀농 인큐베이팅 추진 - 농지은행의 임대농지 활용(최대 3년) - 멘토제도 도입 • 지역별 특성화 된 전문 교육 - 지역 농업기술센터 중심 추진	• 주택문제 지원 - 임대 가능 주택 DB 구축 지원 • 지역커뮤니티 형성 지원 - 교육, 문화 등 지역사업 발굴 및 지원 - 노후생활형농업 등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비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커뮤니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착단계	• 스타트업(Start-up)전문경영교육 추진 - 마케팅, 세무, 회계 등	

☐ 경기농림진흥재단 중심의 기본교육과 농업기술원이 주도하는 스마트형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추진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품목별 기본교육, 귀농·귀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

- 경기농림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하여 경기도내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

○ 경기도의 높은 토지가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스마트형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농업 교육 강화

☐ 경기도는 지리적 여건상 5도2촌 형태의 생활이 가능하므로 정착단계 이전의 실효성 있는 1+2 귀농적응지원시스템 구축

○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까지는 3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턴농 1년과 인큐베이팅 2년 등 1+2 적응교육시스템 구축

- 다양한 경험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선도귀농인 농장에서 1~2개월 단위로 1년 정도의 인턴교육 추진

- 2년 정도 인큐베이팅 형태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서해안 간척지 등에 임대농지 지원

☐ 귀촌인의 현지적응을 위해 빈집 활용 주거지원 및 교육, 문화 등의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 농촌의 빈집 DB를 구축해 적응단계 귀농·귀촌인의 주거를 지원

- 정착단계 이전 귀농·귀촌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가 가능한 농산어촌 지역의 빈집 DB를 구축하여 지원

○ 경기도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문화 등 분야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귀촌인의 일자리 창출

- 농·산·어촌 지역에 우수한 귀농·귀촌인의 선도적 유치를 통해 교육, 문화 등의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사람이 모이는 농산어촌 마을 조성

【 귀농·귀촌 가구 수 현황 】

(단위 : 가구)

시·도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30,082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4,080	4,067	10,503
지역별	부산	1	-	-	-	-	-	1	-	-	-	-	-
	대구	0	-	-	-	-	-	-	-	-	-	-	-
	인천	216	-	1	-	16	28	2	-	-	26	20	123
	광주	13	13	-	-	5	6	-	1	-	-	-	1
	대전	2	1	-	-	-	-	-	1	-	-	-	-
	울산	7	-	-	-	-	-	7	-	-	-	-	-
	경기	883	57	18	44	19	28	57	89	126	102	69	224
	강원	3,769	151	26	156	227	102	134	121	141	232	312	2,167
	충북	1,967	25	43	56	141	68	172	196	142	270	272	582
	충남	2,476	28	74	46	137	237	184	157	227	335	324	727
	전북	4,444	127	90	145	166	73	250	467	385	883	611	1,247
	전남	4,235	77	67	51	37	89	249	257	289	549	768	1,802
	경북	6,732	115	218	86	334	359	378	772	485	1,118	1,112	1,755
	경남	4,900	243	210	265	203	242	267	277	373	525	535	1,760
	제주	487	56	22	31	16	7	58	48	50	40	44	115
연령별	29이하	1,438	38	62	64	34	54	70	44	31	686	59	296
	30~39	5,547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1,184	553	1,438
	40~49	8,821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1,294	1,229	2,682
	50~59	8,841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749	1,457	3,537
	60이상	5,435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167	769	2,550

자료 : "지난 해 귀농·귀촌 가구 사상 최고인 10,503가구, 23,415명",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2.2.23).